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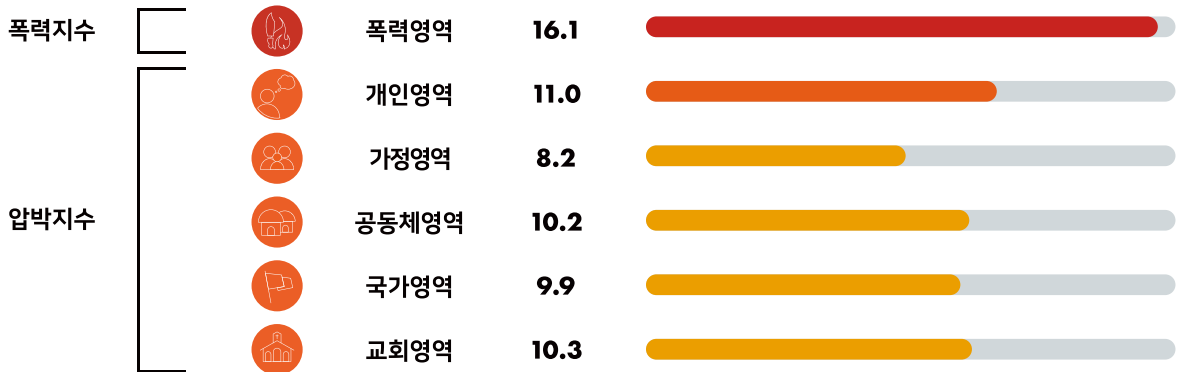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차드 (CHAD)

기독교 박해지수
48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차드가 불안정하고 점점 더 권위주의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 특히 개종자와 소수자들은 여러 층위의 박해에 직면한다. 기독교인들은 종종 외국의 영향력이나 정치적 반대와 연계된 것으로 인식되어 감시, 괴롭힘, 자의적 탄압의 대상이 된다. 남서부의 분쟁은 공동체 간 긴장을 심화시켰으며, 기독교 공동체와 비()기독교 공동체 사이의 폭력은 이주, 재산 파괴,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코하람과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 지부(ISWAP) 같은 지하드주의 단체들은 차드호 유역(Lake Chad Basin) 주변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의 보호가 제한적인 농촌 지역에서 기독교 마을을 공격하고, 교회를 불태우며, 신자들을 납치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불안정과 종교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공식적 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다. 무슬림 다수 지역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위협, 구타, 신앙을 숨기도록 강요받는다. 와하비 영향력은 커지고 있으며, 사적인 예배조차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 당국은 개종을 인정하지 않고 등록법을 이용해 교회를 통제한다. 이러한 역학은 차드 전역의 기독교인들에게 두려움과 배제의 분위기를 지속시킨다.

차드 (CHAD)

국가 정보

지도자 : 마하마트 이드리스 데비 이트노 대통령

인구 : 19,426,000명

기독교인 수 : 5,998,000명¹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5,998,000	30.9
이슬람교	11,893,000	61.2
민속종교	1,273,000	6.6
기타	262,000	1.3
	합계	100%

출처²

차드의 법적·정치적 환경은 여전히 매우 억압적이며, 반대 의견에 대한 적대감, 표현과 집회의 자유 제한, 광범위한 족벌주의로 특징지어진다. 빈곤은 심각해 인구의 42% 이상이 국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WFP, 2025년 7월 열람), 차드는 자연재해와 지역적 불안정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

2021년 이드리스 데비(Idriss D by) 대통령이 사망한 뒤 그의 아들 마하마트 데비가 집권했으며, 처음에는 18개월 안에 민간 통치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 진압으로 100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이 과정은 지연되었다. 선거는 결국 2024년 5월에 치러졌고, 마하마트 데비가 승리했다. 이는 일정한 정치적 연속성을 가져왔지만, 권위주의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강화했다. 2024년 2월 보안군에 의한 야당 지도자 야야 딜로(Yaya Dillo)의 사망은 민주적 전환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켰다.

차드는 주변의 불안정에 둘러싸여 있으며, 인접 국가들의 분쟁이 차드로 확산되고 있다. 수단의 통치 붕괴, 니제르의 지속적인 취약성, 차드호 유역 전반의 지하드주의 반란은 국가 안보를 약화시켰다. 정부의 금지 조치에도 와하비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으며, 외국인 전투원들이 남서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차드는 헌법상 세속 국가이지만, 이슬람은 지배적 종교이며 사회·정치 생활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기독교인들은 종종 외부인이나 외국 의제와 연계된 존재로 여겨져 적대에 직면한다. 민족적 분열은 종교 정체성과 겹쳐 나타난다. 아랍인, 카넬부(Kanembu), 보르누(Bornu), 부두마(Buduma)와 같은 집단은 대체로 무슬림이며, 와다이 불랄라(Wadai Bulala), 코베(Kobe), 타마(Tama), 바르마(Barma)와 같은 대체로 기독교인으로 이루어진 집단과 긴장 관계를 맺고 있다. 토착 종교도 여전히 존재하며, 때로는 이슬람이나 기독교와 혼합되기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인들, 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은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개종자들은 사회적 배척, 위협 또는 신체적 공격에 직면한다. 교회는 엄격한 감시를 받으며, 복음주의 공동체는 등록장벽에 부딪힌다. 남서부에서는 기독교 공동체와 무슬림 공동체 사이의 긴장이 폭력으로 확대되어 더 넓은 불안정에 기여하고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¹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² 기타(Other)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오픈도어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수정.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차드의 남부 접경 지역(서부 및 남서부)에 속한 카넴(Kanem), 살라마트(Salamat), 라크(Lac), 실라(Sila)에서는 보코하람을 포함한 지하드주의 단체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투원들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와다이(Wadai), 바기르미(Bagirmi), 피트리(Fitri)에서는 와하비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 남서부에서는 기독교인 농민들이 표적 폭력, 토지 분쟁, 인접 주민들의 적대감 증가에 직면한다. 차드 중부의 교회들은 아프리카 전통종교 신봉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이들은 기독교 전도 활동에 자주 저항한다. 차드 남부와 남동부 역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무장 단체들이 기독교인 농민과 그들의 재산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차드 동부의 불안정은 수단 및 현지 반군 단체들에 의해 발생한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

이 범주는 WWL 점수 산정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로마가톨릭교회와 그리스 정교회가 이 범주의 주요 집단이다. 우아다이(Ouadda)와 살라마트에서는 가톨릭 기관들이 교회와 병원 건축을 위해 예정된 토지에 접근하지 못했다. 감리교와 같은 개신교 단체들은 전도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기독교 개종자

차드 동부와 북부의 무슬림 배경 개종자들은 가족의 박해와 거부를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예배해야 한다. 남부의 아프리카 전통종교 출신 개종자들은 비(非)기독교 의례에 참여하라는 상당한 압박에 직면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오순절 및 은사주의 교회들은 차드 전역에 존재하지만, 종종 “종파”로 치부되며 구성원들은 지역 사회의 압박과 언어적 학대의 대상이 된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주의적 억압

이슬람주의적 억압은 수단 국경 인근의 차드 남서부와 지하드주의 이념이 깊이 뿌리내린 북부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국가를 이슬람화하려는 중앙집중적 운동은 존재하지 않지만, 급진적 이슬람 영향력은 극단주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와하비 지원 모스크, 학교, 기관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은 기독교인, 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에게 점점 더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이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위협, 폭력, 감시, 배제를 견딘다. 외국인 전투원들의 지원을 받는 보코하람 같은 지하드주의 단체들은 불안정을 심화시켜, 이슬람주의적 억압을 지배적이고 확대되는 박해 동인으로 만들고 있다.

독재정권의 편집증적 피해의식

차드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기독교인을 포함해 반대 목소리에 대한 체계적 의심을 키운다. 2021년 이드리스 데비 대통령이 사망한 뒤 그의 아들 마하마트는 헌법적 규범 밖에서 권력을 장악했다. 시민적 자유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예배, 발언, 집회의 자유는 강도 높게 감시된다. 정권을 비판하거나 외국 이념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기독교인들은 괴롭힘이나 국가의 협박을 받을 특별한 위험에 처한다.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차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국가 중 하나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24년 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21점을 기록했다. 범죄 네트워크가 국경을 넘어 활동하며 법치를 약화시키고 있다. 기독교인들에게 부패는 갈취, 토지 강탈, 자의적 구금의 형태로 나타난다. 사법제도는 접근하기 어렵고, 특히 분쟁 지역에서는 무장 단체와 범죄 집단이 무법 상태를 이용해 교회와 신자들을 표적으로 삼는다.

씨족 억압

엔네디(Ennedi)와 같은 북동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민족 기반 박해에 직면한다. 남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전통 의례에 참여하라는 지역 사회 지도자들의 압박을 받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강압과 사회적 배제를 겪는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젠더 기반 폭력과 해로운 사회 규범은 차드에서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은 특히 취약하다. 보코하람과 다른 폭력 단체들은 특히 농촌 지역과 국내실향민 수용소에서 이들을 납치하고, 강간하며, 강제로 결혼시켜 왔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여성들은 개종 철회 압박에 직면하며, 강제결혼, 강제이혼, 자녀 양육권 상실, 폭력을 건디는 경우가 많다. 많은 여성들은 가족에 의해 가택 연금 상태에 놓여 기독교 공동체에 접근하지 못한다. 트라우마, 사회적 배척, 빈곤은 이들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사회적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차단

- 상속권·재산권 박탈
- 강제로 집에서 쫓겨남(추방)
- 강제이혼
- 강제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 연금)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 언어적

남성

차드의 기독교 남성과 소년들은 납치, 강제 개종, 보코하람과 다른 무장 단체로의 모집을 포함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다. 남성이 대체로 생계부양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실은 가족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린다. 남아 있는 이들은 특히 무슬림이 장악한 정부와 군 관련 직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승진 거부, 경제적 배제를 겪는다. 남부에서는 소년들이 채찍질, 화상, 성적 모욕과 침해, 약물 투여, 모의 매장 등을 포함하는 해로운 입문 의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종자들은 추방, 상속권 박탈, 학대의 위험에 처해 빈곤과 사회적 고립에 취약해진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사업·직장·노동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양심에 반하는 군대·민병대 징집 및 복무 강요
- 폭력 - 사망 / 신체적 / 심리적 / 언어적



월드 와치 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6	48	66
2025	49	65
2024	56	61
2023	60	58
2022	63	55

차드는 WWL 2026에서 66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WWL 2025 보다 1점 높은 수치이다. 소폭 상승은 폭력 영역의 약간의 증가를 반영한다. 차드의 기독교인들은 약한 제도, 일관성 없는 지방 행정, 차드호 유역에서 확대되는 무장 이슬람주의 세력 등 여러 방향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교회들은 폐쇄, 토지 분쟁, 활동을 방해하는 자의적 규제 결정에 직면한다. 남서부와 다른 농촌 지역에서는 무장 목축민 집단이 기독교인 농민들을 자주 표적으로 삼아 토지 강탈, 작물 파괴, 주기적 충돌을 일으키며 공동체를 강제 이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위협은 기독교인의 삶이 지속적인 주의와 인내를 요구하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현지 조사자들에 따르면, 2025년 6월 은자메나(N'Djamena)에서 거리 전도에 참여하던 여러 젊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어 간첩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5년 8월 법률 지원 단체/변호인단의 도움으로 석방될 때까지 구금되어 있었다.
- 2025년 5월, 로곤 옥시덴탈(Logone Occidental) 주에서 무슬림 목축민들과 주로 기독교인인 농업 공동체 사이에 폭력적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 현장 보고서와 보안 업데이트에 따르면 최소 35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은 마을 공격 중 고의로 표적이 된 기독교인 농민들이었다.
- 보안 소식통은 2025년 상반기에 차드호 유역 지역에서 최소 5명의 기독교인이 보코하람에 의해 납치되었음을 확인했다. 생존자들은 야간 습격 중 기독교인 가정이 고의로 식별·선별되며, 포로들이 몸값 요구나 사상 주입을 위해 나이지리아와 니제르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한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납치된 기독교인 수	살해된 기독교인 수	교회나 기독교 건물 공격 혹은 폐쇄 건수	국내 실향 기독교인 수
2026	10*	47	10*	1,000*
2025	18	11	10*	1,00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 반올림한 수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차드에서 이슬람이 지배적인 지역, 특히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기독교 개종자들이 비밀리에 살아가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거나 성경과 같은 종교 자료를 소지하면 언어적 위협, 폭력 또는 가족의 집에서 쫓겨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종자들은 친족에 의해 상속권을 박탈당하거나 재정 지원이 끊기거나 신체적 폭행을 당할 위험이 있다. 노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기독교 모임을 피하고, 다른 신자들과 소통할 때 은어 또는 암호화된 표현을 사용하며, 신앙 실천을 사적인 공간으로 제한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웃들조차 개종자를 지역 당국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고하여 그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킨다.

가정 영역

많은 무슬림 다수 가정, 특히 북동부와 동부 주에서는 기독교 개종자들이 강한 가족적 압박, 정서적 학대 또는 강제 재이슬람화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숨겨야 한다. 여성들은 특히 취약하며, 종종 결혼을 강요받거나 자신의 기독교 신앙이 금지되는 결혼 관계에 남아 있도록 강요받는다. 개종자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기독교를 실천하거나 그것에 대해 배우는 것조차 금지될 수 있다. 가족 구성원들은 개종자를 통제하고 종교적 변화를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상속권 박탈, 이혼, 자녀 양육권 상실 위협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 영역

차드 남서부에서는 무장 단체들에 의한 폭력과 기독교인 재산에 대한 표적 파괴로 전체 공동체가 강제이주하게 되었다. 특히 도시 모스크의 젊은 이슬람 성직자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지역 사회의 감시와 협박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된다. 북부에서는 현지 이슬람 지도자들이 공공 자원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독교인들이 교육, 물, 의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개종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마을 회의, 사회적 모임, 경제 활동에서 배제된다.

국가 영역

차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 이행은 여전히 약하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공식 문서상의 이름이나 종교 표기를 변경하려 할 때 자주 관료적 저항에 부딪힌다. 기독교인들은 특히 공무원 직에서 국가 고용에 과소대표되어 있는데, 이는 이슬람 관행과 연계된 선서에 대한 비공식적 요구 때문이다.

교회 영역

교회 등록은 의무적이지만, 특히 독립 교회나 복음주의 단체의 경우 등록을 받기가 어렵다. 농촌과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교회 건물이 부족하며, 기독교인 모임은 괴롭힘이나 공격에 취약하다. 감시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기독교인, 특히 개종자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며, 이는 공동체적 종교 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차드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차드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국가는 차드 기독교인들의 기본권을 명백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ICCPR 제2조)
- 기독교인들은 무차별 공격으로 살해된다(ICCPR 제6조)
- 기독교인 여성들은 강간, 집단 강간 및 성적 학대를 당한다(ICCPR 제7조)
- 기독교인 자녀들은 이슬람 종교 계율을 따르도록 강요받는다(ICCPR 제18조 및 CRC 제14조)
- 기독교 개종자들은 차별과 폭력에 시달린다(ICCPR 제18조 및 제26조)

차드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프 리 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2024년 세계자유지수(Global Freedom Index 2024)에 따르면: “국가는 주로 특정 이슬람 종파를 대상으로 여러 종교적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이맘들은 준공공 기관인 이슬람고등위원회의 관리 대상이며, 이 위원회는 티자니아 수피 종단(Tijanyya Sufi order)에 속한 이맘 집단이 이끌고 있다. 부르카 착용은 장관령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는 공공 장소에서 부르카를 착용한 사람들을 구금한다.



© Alamy

오픈도어의 차드 사역

오픈도어는 1990년대부터 지역 교회를 통해 간헐적으로 차드에 관여해 왔다. 차드를 향한 우리의 비전은 성도들이 성경적 관점에서 박해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체계적으로 제자화하는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경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교회, 그리고 새신자들에게 필요한 영적·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교회이다.

지역 교회와 협력하여 시행하는 우리의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한다:

- 박해 대비 훈련
- 경제적 역량 강화



이 보고서에 관하여

- 이 국가 보고서의 내용은 오픈도어 인터내셔널(Open Doors International)의 조사 부서인 월드워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WWR)가 수행한 상세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보고서는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2026 Open Doors International.
- 50개 모든 국가 보고서와 WWL 산정 방법 (방법론)의 최신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은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입니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사진은 설명을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